

# 전남도, 청·중장년까지 '일상돌봄' 확대

### 22개 시·군서 가사 지원·병원 동행·심리 지원 등 제공 일상생활 불편·어려움 해소 기본·특화서비스 2개 유형

전남도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0세)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질병·정신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영암과 해남 등 2곳에서 시범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40~64세 중장년에서 19~64세 청·중장년으로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에게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등 2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돌봄 ▲정소, 식사, 설거지 등 가사 지원 ▲은행 방문, 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월 1시간에서 7시간까지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군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달리 제공한다. 대상자는 최대 2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 최

대 3년이다. 서비스 가격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 본인 부담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했던 영암군의 곽모(58)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사에 도움을 받고 혼자 병원에 가 재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져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청·중장년

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써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5일 오전 광주 북구 보건소 구급차 긴급출동 차고지에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직원들이 응급환자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에 대비, 의약품과 응급의료 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 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전문성 높인다

### 아이돌봄미 양성교육 이론·실습 120시간 대폭 확대 교육기관 기준 2곳서 4곳으로 늘려...오늘부터 모집

광주시가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 때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이돌봄미 교육기관의 이론 및 현장 실습 시간을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아이돌봄미 역량강화스쿨'을 개설·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봄미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등 1대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건수는 2021년 35만9천여건, 2022년 36만7천여건, 2023년 40만3천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아이돌봄미 전문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아이돌봄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론·현장실습을 지난해 90시간에서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려 아동 안전과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소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 가정과 아이돌봄미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

터는 5월부터 '아이돌봄미 역량 강화스쿨'을 운영, 영아돌봄 전문교육과 감정소진 예방교육 등 아이돌봄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아이돌봄미 교육기관을 광주대 평생교육원, 동강대 산학협력단 등 기존 2개소에서 내년부터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천여명에 달하는 아이돌봄미의 전문성 강화와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양육자가 마음 편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역량 있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진 기자

# "광주상생카드 재발급 받으세요"

### 31일 만료일 도래...내달부터 소액 자동충전 개선

광주시는 5일 "광주상생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3월부터 도래하는 만큼 미리 확인, 카드를 재발급해달라"고 밝혔다.

광주상생카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카드 뒷면에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다. 2019년 3월 도입한 만큼 이달 말부터 만료일이 도래하게 된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사용자의 편리와 편의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재발급을 통해 남은 충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체크카드와 기명 선불카드 대상자에게는 재발급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사용 실적이 있는 체크카드

의 경우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사용 실적이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3개월 내에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카드헬프센터(1577-3650)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또 광주상생카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금액도 자동 충전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자동 충전이 가능했지만 4월1일부터는 1만원 이상 소액도 자동 충전이 가능해진다. /박성진 기자

# 도,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 시동

### 스트레스 측정 등 지원...광역정신건강센터 신청

전남도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2024년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를 5월 신안 대울경로당에서 시작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우울 확산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사회회고립으로 인한 자살,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안심버스는 2022년 합평군을 시작으로 2023년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올해는 여수시가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2천108명을 걸친데 이상소견 14명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

록하고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했다.

올해 마을안심버스는 ▲정신건강 검진 ▲스트레스 측정 ▲가상현실(VR) 힐링 체험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마을안심버스 방문을 희망하는 단체 기관은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61-350-1721)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선제 대응하고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 과수 4종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연장

### 도, 사과·배·단감·곶감 8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5일 "사과, 배, 단감, 곶감 등 과수 4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8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준다.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90%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전체 11만2천농가가 가입해 총 보험료 1천884억원을 납입했다. 태풍·호우 등 피해로 총 1천497억원을 수령해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됐다. /양시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약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